

경계의 존재들이 제기하는 의문들*

- 재일조선인과 '국가', '언어', '문학'

이 재 봉**

차 례

- | | |
|--------------------------|--------------------------|
| 1. 재일조선인이라는 경계의 존재들 | 1) 비틀리는 관념과 '국가'의 폭력 |
| 2. 보이지 않는 동네, 보이지 않는 존재들 | 2) 일본어와 허구, 그리고 서정이라는 양식 |
| 3. 의심되는 관념들-국가, 언어, 문학 | 4. 경계를 넘어서 |

국문초록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아닌 경계를 사는 재일조선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명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관념들에 균열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려올 수 있다. 그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당연하다거나 자명하다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흔들어 버린다. 그들은 밖으로 내몰린 경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국가, 언어, 문학 등 근대를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교수국외장기파견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성하는 핵심적인 관념들에 곤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그만큼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다. 국가는 과연 동일한 역사와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견고한 체제인가? 그리고 그 체제는 과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가? 그들이 쓰는 언어는 과연 모두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 언어는 과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만 기여하는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그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은 과연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에 충실한가? 그래서 문학은 의심할 수 없는 제도인가?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때로는 불편하고 당혹스럽지만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들이 건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경계, 재일, 재일조선인, 국가, 언어, 문학

1. 재일조선인이라는 경계의 존재들

『그들의 집』으로 2000년 제122회 아쿠타가와 상을 받은 현월은 일찍이 자신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일본인이면서도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닌 것이다. 나는 내 존재가 벽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듯하다. 바닥에 닿지도 않고 천정에 닿지도 않은 채 공중에 붕 떠 있는 존재 말이다.¹⁾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경계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현월은 벽의 못에 걸린 존재라는 비유로 풀어낸 셈인데, 이 질문 속에는 근대의 국민 국가라는 관념에 대한 의문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일본인이면서도 일

1) 최학림 대담, 『부산 온 일본 아쿠타가와상 수상 재일동포 현월 씨』, 『부산일보』, 2007년 1월 22일.

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닌' 존재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가에 모두 관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들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비단 현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네시로 카즈키(金城一紀)는 제123회 나오키(直木)상을 받았던 『Go』라는 작품에서 한국에 처음 온 스기하라(衫原, 한국명 정호)의 불쾌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건은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일어났다. 서울 시내의 불고기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택시를 탔다. 나 혼자 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탄 택시에는 불고기집에서 알게 된 사이좋은 일본인 중년부부 관광객이 동승했다. 그 부부가 우리 가족과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을 향해 가는 도중, 마흔 안팎의 운전수가 말을 걸어 왔다.

“《재일》인가?”

내가 한국어로 그렇다고 대답하자, 운전수는 코를 킁킁거리고 입술 끝을 아니꼽게 치켜 올리면서 간들거리는 얼굴을 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의식 속에는 「『재일』은 은혜 받은 일본에서, 고생도 하지 않고, 무언가 부자유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이, 그 중에는 비뚤어진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달려드는 한국인이 있다. 택시 운전수도 아무래도 그런 유형의 사람 같았다.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택시운전수는 ‘몇 살이나?’라든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 ‘김치 먹을 수 있어?’ 등 시덥잖은 질문을 했고, 내가 한국어로 대답할 때마다 ‘발음이 그게 뭐냐’라는 느낌으로 코를 킁킁거렸다. 택시 미터기가 착착 올라가고 있었다. 내 분노의 미터기도.²⁾

얼마 전까지 북한 국적이었던 ‘스기하라’ 가족은 남한으로 국적을 바꾼 후, 제주도의 산소(스기하라의 조부모)에 성묘하기 위해 거의 50년 만에 귀향한다. 이 작품에서는 소설의 주인공이 ‘스기하라’이기 때문에 반세기 만에 귀향하는 부모의 심리는 거의 묘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 가네시로 카즈키(金城一紀), 『GO』, 講談社, 2000, 83-84쪽.

재일조선인 3세로서 조부모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스기하라’의 심리와 상황이 주된 서사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의 감정은 2세 또는 1세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차별은 일상적이었지만 처음 방문한 한국 역시 그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스기하라를 처음 맞은 것은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시선일 뿐이었다.

택시운전수에게 ‘재일’은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일본이라는 은혜 받은 곳에서 호의호식하는 아니꼬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스기하라를 끊임없이 조롱하며 당연히 그에게 돌려주어야 할 거스름돈도 주지 않는다. 억울하고 분했던 스기하라는 택시운전수에게 주먹을 날려 응징하지만, 주위 환경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된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호텔의 도어 맨조차도 스기하라에게 불리하게만 말하고 이 때문에 스기하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아버지가 택시운전수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된다. 잘못된 사람은 택시운전수였지만 스기하라와 그의 아버지는 ‘재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둘러 사과하고 상황을 종료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서경식은 ‘난민’으로 비유한다.

“How Many passports do you have?”

저녁식사 뒤 잡담이 잦아들 무렵 F군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즉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친구가 농담을 하나 싶었지만, F군은 사람을 빨아들일 듯 그윽한 시선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중략- 한데, ‘넌 여권을 몇 개나 갖고 있니’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 몇 개는커녕 나는 단 한 개의 여권을 손에 넣기 위해 꽤 고생을 했고 그에 관해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도 있었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 굳이 밝혀두자면, 한국 국적의 재일조선인인 내가 일본 국외로 나가려면 대한민국 여권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적어도 그 당시에는) 여권 발급 업무를 노골적인 국민통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시기는 다르지만, 나와 누이 모두 한국의 옥중에

있던 형과 면회하기 위해 여권을 갱신하는 데 무려 1년 반이나 기다렸던 적이 있다. 그동안에는 일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새장 속의 새 신세였다.

내친 김에 더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올 때도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라는 것이 필요하다. 설령 태어나 일본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어도 외국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재입국 신청서'라는 서류의 '여행 목적'란에 우리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거주'(residence)라고 적는다. 거주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곧 난민이다. '재입국 신청서'를 쓸 때마다 나는 "그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인 게야"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³⁾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에 살고 있는데도 일본 국민이 아닌 존재,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는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재일조선인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밖으로 나갈 때는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살던 곳으로 되돌아 갈 때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위 인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 내에서는 언제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등에서 재일조선인은 난민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보이지만 북한 국적이나 무국적인 '조선'을 선택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에게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

동일한 정체성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근대 국민국가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민족이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대적 인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일조선인과 같은 경계⁴⁾의 존재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3) 서경식, 『방황하는 노파』,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역,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31-32쪽.

4) 물론 이러한 경계 혹은 틈새는 단일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공간은 식민지 지배자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근대 국민국가의 바깥으로 내몰려버린 이런 존재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근대적 상황에서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는지 하는 데 있다. 이들은 때로는 근대적 관념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재 그 자체가 그런 관념들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이나 이들로 인해 생겨나는 균열들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의 관념들이 낳은 모순과 문제점들을 되짚어보는 일이고, 혹은 자명하거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일조선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보이지 않는 동네, 보이지 않는 존재들

재일조선인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때로는 집단적인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일본인 속에 섞여 살기도 한다. 재일조선인이 마을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의 이카이노(猪飼野)는 재일조선인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말 그대로 돼지

와 피지배자, 제국의 문화와 식민지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적이고 혼종적인 식민 공간일 수도 있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하위 문화들의 시간을 억압하고 동질화시켜가는 국민문화의 내부적 공간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자본의 전지구화 속에서 초국적이고 번역적인 문화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중간지대일 수도 있다.(김용규,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호미 바바 읽기』, 김상구 외, 『틈새 공간의 시학과 실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5, 7쪽.) 그렇지만 여기서 이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첫 번째의 경우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고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저항에도 근대 국민국가의 논리가 관철되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를 키우는 들판이란 뜻을 지닌 이카이노(猪飼野)는 현재, 오사카의 쓰루하시(鶴橋), 모모다니(桃谷), 나카가와(中川), 다시마(田島) 등의 지역을 가리킨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버려진 곳이었다 이 지역은 1923년 4월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가 제주-오사카 항로를 연 뒤⁵⁾ 제주도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조선인들의 마을로 형성되어 재일조선인을 상징하는 독특한 장소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카이노는 재일조선인 작가와 작품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소이다. 예컨대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金石範)이 태어난 곳도 이카이노이며, 『화산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남승지’가 죽음의 섬 제주도를 탈출해서 가는 곳도 이카이노이다.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시인이라 할 수 있는 김시중(金時鐘)이 4.3의 소용돌이에서 밀항해 간 곳도 이카이노이며, 양석일의 『피와 뼈』를 이루고 있는 주된 서사적 공간 역시 이카이노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이민진의 『빠친코』에서도 이카이노는 중요한 서사적 공간으로 등장한다.

이카이노를 남북으로 흐르는 운하를 따라 일찍이 <독토나리>라 불렀던 판자집들이 죽 늘어서 있다. 물론 <독토나리>는 제주도 사람들이 만든 조어이다.

<독토나리>는 ‘독’과 ‘토나리’로 분절할 수 있다. ‘독’은 제주말로 표

5) 1923년 4월,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가 제주-오사카 항로를 개설하고 취항하는 과정, 이듬해인 1924년 ‘간쿄마루(咸鏡丸)’가 같은 항로에 취항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오사카 이주는 본격화된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운임이 지나치게 비쌌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운임 인하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1930년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을 결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1930년 11월 마침내 배를 빌려 ‘고류마루(蛟龍丸)’를 취항시킨다. 그리고 용선 계약이 끝난 후에는 직접 배를 구입하여 1931년 12월 1일 ‘후시키마루(伏木丸)’를 취항시킨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의 이런 노력은 일본 선박회사들의 집요한 방해와 관헌의 탄압으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만다. 이상의 과정은 양석일, 김석희 역 『피와 뼈(血と骨)』, 자유포럼, 1998, 259-280쪽에 상세하게 서사화되어 있다.

준어로는 ‘닭’이고 발음은 ‘닥’이다. ‘토나리’는 일본어로 ‘이웃’이란 말이다.

즉, <독토나리>는 ‘닭’장 같은 집들이 ‘이웃’해서 길게 이어진 집들을 말한다. 말하자면, 달랑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이카이노에 흘러들어 온 제주도 사람들의 유머러스한 언어감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

‘독토나리’라는 표현은 이카이노가 일본과 조선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카이노는 특히 제주에서 건너 온 조선인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⁷⁾ 이카이노가 일본 속의 조선, 혹은 일본 속의 작은 제주⁸⁾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카이노는 원수일의 소설에 서처럼 조선인들이 부대끼고 갈등하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삶의 현상이 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카이노는 언제나 낙후되고 차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양석일의 『피와 뼈』에서 괴물같은 삶을 사는 폭력적인 아버지 ‘김준평’을 피해 도쿄로 갔던 ‘성한’은 늙고 병든 아버지

6) 원수일, 『재생』, 원수일, 김정혜·박정이 역, 『이카이노 이야기』, 새미, 2006. 169쪽. 『이카이노 이야기』에는 「운하」, 「회락원」, 「물맞이」, 「귀향」, 「이군의 우울」, 「뱀과 개구리」, 「재생」 등 모두 7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이카이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 그 중에서도 제주도 출신 사람들의 삶을 주로 그리고 있다.

7) 원수일은 또 다른 작품에서 이카이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한다. “‘피’라는 유전자의 작용으로 인해 인식되는 ‘고향’이 제주도라면, 당연히 몸에 베인 ‘고향’은 다름 아닌 이카이노다. 그 이카이노는 거절이라고도 포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표정을 밝히고 있는 타향과 이어져 있다. 생각해 보면 이카이노를 중단하는 운하의 물이 타향의 마을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원수일, 『이군의 우울』, 위의 책, 134쪽. 또한 이카이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창생(金蒼生)은 결혼과 함께 떠나고 싶어했던 이카이노를 떠났으나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정을 수필 『日本なかの「故郷」』(김창생,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 風媒社, 1982, 58-66쪽.)에서 서술하고 있다.

8) 이카이노에서 살면서 이카이노를 사진에 담았던 조지현은 이 마을을 ‘일본 속의 작은 제주’라고 명명하고 있다. 조지현, 『조지현 사진집 이카이노(猪飼野)-일본 속의 작은 제주』, 도서출판 각(유), 2019.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10여 년만에 이카이노로 돌아온다. 그 사이 오사카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쓰루하시(鶴橋)’만은 낡고 쇠락한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변해가는 도시, 그러나 변화의 물결에서 뒤처지는 지역도 있다. 택시가 쓰루하시 언저리로 접어들었다. 성한이에게는 정든 곳이지만, 10여 년 동안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오나리 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성한이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모퉁이 국숫집은 성한이가 어렸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영업하고 있었다. 골목으로 한 걸음 들어선 성한이의 머릿속이 녹화 테이프를 되돌려감듯 회전했다. 이게 무슨 착각인가.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은 한산한데, 남아빠진 집들은 옛날 그대로 남아있었다. 골목에는 이제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 낮익은 집에서 나온 것은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노파는 성한이를 힐끗 보고는 허둥지둥 집안으로 숨듯이 들어갔다.⁹⁾

이카이노의 대표적 마을이라 할 수 있는 쓰루하시가 이렇게 낙후된 것은 이곳이 일본인들에게는 더럽고 차별받는 조선인 ‘부락’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카이노에서 사는 많은 조선인들은 거기에서의 탈출을 꿈꾼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탈출은 불가능하며 설령 탈출에 성공했다 할 지라도 이카이노는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 이는 “이카이노 출신 작가들의 문학적 출발에는 ‘이카이노’라는 장소가 각인되어 있으며 이들은 끊임없이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간다”¹⁰⁾는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카이노는 제일조선인들에게 복합적이고 양가성을 지닌 장소이며,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 추방이 전제된 ‘불안한 머무름’의 공간”¹¹⁾으로 자리잡고 있다.

9) 양석일, 김석희 역 『피와 뼈(血と骨)3』, 자유포럼, 1998, 264쪽.

10) 양명심, 『제일조선인과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장소-제일조선인발행 잡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67, 동악어문학회, 2016, 163쪽.

11) 문재원, 『제일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사이 경계와 해체-현월(玄月)과 가네시로』

한편으로 이카이노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인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카이노를 외면하며 애써 보려하지 않는다. 이카이노는 “일본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폐되”¹²⁾어 있는 지역이었고 조선인을 연상시키는 더러운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쿠노쿠(生野区)’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1973년 2월 1일부터 지도에서 삭제된다. 이런 이카이노를 김시중은 ‘보이지 않는 동네’라 명명한다.

없어도 있는 동네.
 있는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동네.
 전차는 되도록 먼 곳에서 달리고
 화장터만은 바로 옆에
 눌러앉아 있는 동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도에 없고
 지도에 없으니
 일본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니
 사라져버려도 괜찮고
 어찌되든 좋으니
 제멋대로 한다네.

김시중, 『보이지 않는 동네』, 부분¹³⁾

이카이노라는 명칭이 사라진 2년 뒤인 1975년 김시중은 장편시 『이카

가즈키(金城一紀)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2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10쪽.

12) 권성우, 『김석범 대하소설 『화산도』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의 의미-밀항, 이카이노, 경성(서울)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8, 현대소설학회, 2020, 49쪽.

13) 김시중, 이진경 외 역, 『이카이노시집·계기음상·화석의 여름』, 도서출판b, 2019, 17쪽.

이노시집』을 『삼천리』에 연재하기 시작한다.¹⁴⁾ 4.3의 와중에서 일본으로 탈출하여 맨 처음 닿았던 곳이 쓰루하시였고 제일의 대부분을 이 지역과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시인에게 이카이노는 예사로운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있는 동네’라는 이 표현은 시인이 지니고 있는 이카이노에 대한 태도이자 삶에 대한 결의로도 읽을 수 있다. 이진경은 ‘없어도 있는 동네’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읽어낸다.

이름 두고 ‘있어도 없는 동네’라고 쓴다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자들의 설움이나 분노를, 그들의 고통을 가시화하게 될 것이다. ‘없어도 있는 동네’라고 쓴다면, 남들이 없다고 간주하고 무시하거나,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폄박할 때조차, 남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사는 모습을 가시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자궁하며 쓰게 될 것이다.¹⁵⁾

행정적 명칭으로서의 이카이노는 사라져버렸지만, 제일조선인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카이노’는 오사카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1987년 당시 오사카에서 헌책방을 경영한다고 소개되어 있는 김창생은 『民濤』 창간호에 마련된 좌담회에서 “다만 이카이노라는 것은 특별히 오사카의 이쿠노쿠에 있는 이카이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본에 있는 조선인이 모여 사는 마을이고, 우리말이 자유로이 쓰이는 일상공간이 있고, 가까운 곳에 친분이 생기는 장소라면 이카이노라고 생각할 수 있”¹⁶⁾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

14) 『이카이노시집』은 『삼천리』(1975, 봄 창간, 1987년 여름, 통간 50호로 종간) 창간호에서부터 10호까지 연재된 연작시이다. 물론 이후 발행된 『이카이노시집』에는 더 많은 시가 실려 있다.

15) 이진경, 『없어도 있는 동네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존재론-『이카이노시집』에서 긍정의 존재론과 감응의 다양체』, 『김시중, 어긋남의 존재론』, 도서출판 b, 2019, 166쪽.

16) 좌담회, 『特集 在日朝鮮人文学の今日と明日、二・三世が語る在日文学はこれで

들이 모여 살게 된 야마구치(山口)현의 시모노세키(下関)시, 가나가와(神奈川)현의 가와사키(川崎)시, 도쿄(東京)의 미카와시마(三河島)·에다가와(枝川) 등 재일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¹⁷⁾은 또 다른 이카이노라 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조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살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사와 삶이 배어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공간 역시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또 다른 이카이노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것은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는 동네만이 아니다. 동네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오임준은 조선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인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드물게는 조선인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조선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인이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말하면, 이것은 피부색이 검다든가 희다든가 하는 구별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일본인과 확연한 현상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선인인 내가 어떤 일인지 이대로 일본어를 이력저력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기괴한 현상, 말하자면 차이 있는 현상으로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일찍이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¹⁸⁾

いいのか, 『民涛』창간호, 1987. 11. 78쪽. 이 좌담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는 鄭閔熙(『同人나그네』회원), 趙博(간사이대학 인권문제연구실 연구원), 蔡孝(『놀이판회』회원), 金蒼生(히가시오사카에서 헌책방 경영), 姜奈美(나라교육대학 대학원 미술전공), 鄭大成(와세다대학 제2문학부 학생) 등이며 사회는 裴鐘真(본지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다. 김창생의 위 발언을 원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ただ猪飼野ってのは、別に大阪の生野区にある猪飼野じゃなくてもいいわけね。日本にある朝鮮人集落で、ウリマルがとびかう日常空間があり、近所のよしみが生きている場所であれば、猪飼野やと思うわけ。”

17) 이영희,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조선인부락-이카이노』, 『일본어문학』75, 일본어문학회, 2016, 288-289쪽.

18) 오임준(吳林俊), 『なぜ朝鮮人がみえなかったのか』 『見えない朝鮮人』, 合同出版, 1972. 8-9쪽. 이 부분은 오임준이 오사카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 구어체로 되어 있고 때로는 심한 오사카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재일조선인은 보이지 않는다.¹⁹⁾ 피부색이 다르거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재일조선인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오임준은 조선인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언어, 특히 재일조선인이 사용하는 일본어라고 말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이 사용하는 일본어는 물론 강압적 식민지 지배와 관련 있는 것이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재일조선인은 조선어로 말해야 하고 위 인용과 같은 강연의 경우 (동시)통역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당연한 사실마저 정면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재일조선인은 보이지 않는다.²⁰⁾

오임준은 재일조선인의 일본어는 식민지 지배에서부터 강제된 것이라

19) 보이지 않는 것은 재일조선인만이 아니다.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독일 영화 <Transit(통행증)>은 심각하고 흥미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1940년 프랑스 파리가 나치에 의해 함락되던 시기와, 주인공의 이동에 따라 파리에서 마르세이유에 이르는 장소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는 나치를 피해 파리를 거쳐 마르세이유까지 피해 온 ‘게오르크’라는 인물이 그곳을 벗어나기 위한 목숨 건 노력의 과정이 주된 서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게오르크’ 뿐만 아니라 그가 마르세이유까지 이르는 목숨 건 여정에서 만났던 그 누구도 그곳을 탈출하지 못한다. 나치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던 그들은 부상으로 죽거나 독일군에 잡혀 죽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한다. 그리고 운 좋게 ‘통행증’을 얻어 미국으로 가는 ‘올림푸스호’에 탔던 소수의 사람들은 독일군의 어뢰 공격으로 모두 죽고 만다. 결국 ‘게오르크’마저 흔적을 감추고 이들의 이야기는 마르세이유에서 그가 자주 들렀던 카페 주인에 의해 담담하게 전해질 뿐이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1940년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거리와 건물 등 공간적 배경은 2018년도의 것이라는 점,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모두 최신형이라는 점이다. 감독은 서로 다른 시공간을 겹쳐 놓음으로써 그와 같은 시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20) 그렇지만 이 글에서 오임준의 논리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임준의 논리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위의 책뿐만 아니라, 『日本語と朝鮮人』(新興書房, 1971), 『朝鮮人としての日本人』(合同出版, 1971) 등의 논리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는 점을 명확히 짚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인을 노예적 상태로 몰아넣었던 시기, 일본어는 모든 조선인에게 강제된 것이었으며 조선인이 사용하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했던 것, 그리고 조선의 문인들도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미요시 다쓰지(三好達治),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기쿠치 칸(菊池寛) 등을 그 예로 들어 일본인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²¹⁾ 일본어가 (재일)조선인의 “국어”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극단적 국어내셔널리즘이 작용하여 (재일)조선인이 모두 유려한 일본어를 사용한다면 조선인의 (재일)조선인의 일본어는 일본인의 일본어와 다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조선인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반대로 (재일)조선인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재일)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오임준이, 1971년 이회성(李恢成)이 『다듬이질하는 여인(砧をうつ女)』이란 작품으로 아쿠타가와 상을 받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 바 ‘조선 붐’이 불고 있는 것, 그리고 이회성이 쓰고 있는 유려한 일본어 문체에 우려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회성의 수상을 두고 일본의 언론들이 ‘최초의 외국인 작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²²⁾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재일조선인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 모어와 모국어의 분리라는 디아스포라적 현상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에게 언어, 특히 일본어와 조선어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이다. 일본어와 조선어, ‘모어와 모국어의 상극’이라는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을까?²³⁾ 설령 어떤 하나의 길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모든 문제를 푸는 정답일 수 있을까?²⁴⁾ 오임준이 해답

21) 오임준, 『なぜ朝鮮人がみえなかったのか』, 앞의 책, 16-17쪽.

22) 위의 글, 14-16쪽.

23) 서경식, 『모어와 모국어의 상극-재일조선인의 언어경험』(서경식, 권혁태 역,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66쪽.

을 찾았는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재일조선인은 이래저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비록 이름이 없어지고 많은 것이 변하고 낯설어졌어도 이카 이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마찬가지로 세대가 바뀌고 인식과 생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가지만 재일조선인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네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경계 내부의 존재들이 그들을 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사는 장소, 그들이라는 경계의 존재가 경계 내부의 존재들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국가의 내부 존재들은 그들을 차별과 배제, 감시와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가 소리 높여 떠들고/사투리가 활개치고/그릇들마저 입을 가지고”있으며, “일본어 아닌 일본어로/고래고래 고향치”²⁵⁾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늘 그곳에서

24) 서경식은 “모어와 모국어의 상극이라는 아포리아”를 극복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일조선인의 소멸(일본의 입장에는 동화, 한국의 입장에서 는 기민)이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재일조선인은 소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지배의 산물이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재일조선인은 쉽게 소멸될 수 없을 뿐 그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재일조선인이기를 그만두고 완전히 조선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 또는 북한에 영구 귀국하여 일본적인 문화나 생활습관을 완전히 없애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원래의 모어(일본어)를 조선어로 교환함으로써 ‘모어’, ‘모국어’, ‘국민’의 세 축을 일치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예로 서경식은 자신의 친형 서준식을 예로 들고 있다. 셋째로는 일본에서 의식적으로 조선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모국어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다. 이 역시 서경식은 또 다른 형인 ‘서승’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해방 후에도 ‘모국어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식민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모국어의 권리”는 한편으로 “모어의 권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경식은 “일본에 대해서는 ‘모국어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 또는 이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모어를 지닌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다시 말하면 ‘모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서경식, 위의 글, 64-76쪽 참조.

25) 김시중, 『보이지 않는 동네』, 앞의 책, 17쪽 및 20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곳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의문들을 들어보자.

3. 의심되는 관념들-국가, 언어, 문학²⁶⁾

1) 비틀리는 관념과 ‘국가’의 폭력

단일, 차별, 동화, 배척, 혼혈, 이질, 균질, 잡종, 아마토 민족, 이민족, 혈통, 예조(아이누 족의 옛이름-인용자), 구마소(熊童, 옛날 사츠마, 오오스이, 휴가 등 규슈 남부에 살았던 부족-인용자), 류큐, 국제, 국수, 양이, 순결, 황국사관, 팔굉일우, 만세일계, 대동아공영권, 부국강병, 일시동인, 일선일체, 일선동조, 일한합병, 황민화, 신민, 총독부, 창씨개명, 영유, 제국, 식민, 통합, 침략, 정복, 괴뢰, 복종, 억압, 지배, 예속, 격절, 격리, 잡혼, 잡거, 혼합, 신주, 도래, 차이, 편견, 이동, 증식, 번식, 이인종, 열등인종, 우등인종, 혈족, 팽창, 영토, 통치, 착취, 약탈, 애국, 우생학, 동포, 계층, 이족(異族), 융합, 화합, 야합, 배외(排外), 배타, 배제, 살육, 섬멸²⁷⁾

이들은 가네시로 가즈키의 『GO』에서 주인공 ‘스기하라’가 이전부터 일본에 유포되어 오던 ‘단일민족신화’의 중요한 관념들을 관계 서적이거나 도서관 등에서 모은 것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관념들은 일본이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생산되고 확대되어간 것들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동일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중의 중요한 하나가 단일민족신화

26) 이 부분은 「국민국가의 경계에서 동아시아를 사유하다」(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기획, 『동아시아 지식학의 세계를 열다』,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에 수록된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27)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GO』, 講談社, 2001, 93쪽.

라고 한다면 그 단일민족 신화의 바탕에는 이미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동화시키거나 배제한다는 논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깔려 있음을 위의 인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가네시로 가즈키의 주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죽여도 죽을 것 같지 않는’ 좀비²⁸⁾같은 존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일본 사회에서 밀려나고 배제된 사람들이지만 ‘좀비’처럼 죽지 않고 끊임없이 되살아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순혈과 순종, 유전적으로 우수한 존재들이 이끌어간다는 관념에 끊임없이 바람구멍을 내고자²⁹⁾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존재가

28) ‘좀비’라는 별명은 이웃에 있는 유명한 인문계 고등학교, 예컨대 총리대신을 배출한 사립대학의 부속고등학교, 고급관료를 줄줄이 배출하고 있는 도립고등학교, 지체 높은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여자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이 전형적인 삼류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폄하하고 비꼬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다. 이 별명을 그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좀비’라는 별명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한 가지는 우리 학교의 평균 학력이 뇌사 판정에 버금가는 혈압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요컨대 뇌사 상태인 우리는 학력 사회에서 ‘살아 있는 시체’에 가까운 존재라는 의미일 것이다./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은 내 마음에 쏙 든다./‘죽여도 죽을 것 같지 않아서./’시각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영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레이더스>의 인디어나 존스, <다이 하드>의 존 맥클레인처럼.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자. 우리 학교 자체의 별명은 ‘쥬라기 공원’이라고 한다.” 가네시로 가즈키, 김난주 역, 『레벨루션 No.3』, 북폴리오, 2004, 12쪽.

29) 가네시로 가즈키는 데뷔작인 『레벨루션 No.3』(김난주 역, 북폴리오, 2004)에서 생물교사 ‘요네쿠라’(교과과정을 무시하고 매 수업시간마다 유전(遺傳)을 운운하는 그를 학생들은 ‘닥터 몰로’라고 부른다.)는 공부라고는 모르고 매일 사고만 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세상을 바꿔보고 싶지 않나?”(23쪽)라고 말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맞아 미치광이 과학자처럼 꼬불꼬불한 백발이 된 닥터 몰로가 학생들에게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란 유전자들을 뒤섞는 것이다. 그의 유전자 전략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 공부 잘하는 인간들의 세계에 산다손 치더라도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유전자 전략으로 고허력자들이 떼지어 형성하고 있는 답답한 계급사회에 바람구멍을 뚫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인간끼리의 유전자 결합을 저지하면서 그 한쪽에 너희들이 끼어드는 것이다. 우등은 열등과 연을 맺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자연의 섭리다. 같은 성질의 유전자들끼리 들러붙는 사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피를 한 장소에 고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27쪽) 이 말을 들은

재일조선인이고, 오키나와의 미군 흑인과 일본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나 일본과 필리핀, 스페인 사람과 화교의 피가 섞인 슈퍼 하이브리드 같은 인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애초부터 순혈성을 강조하는 단일민족에서 벗어나 있고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불편한, 단일민족 신화로 구성된 국가는 따라서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좀비’같은 존재는 그 자체로 언제나 ‘일본’이라는 국가를 비판하고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그가 ‘일본’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오키(直木) 상을 받기도 한 『GO』라는 작품에서 가네시로 가즈키는 재일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정일’이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발칙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한다.

“우리는 나라라는 것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僕たちは国なんてものを持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³⁰⁾

이 발칙하고 도발적인 발언은 민족학교에 다니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며 서술자인 ‘스기하라(杉原, 한국명 이정호)’라는 재일조선인 3세가 ‘민족반역자’, ‘매국노’라며 폭행당하는 장면에서 터져 나온다. 어느 날, 『김일성 원수의 혁명역사』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교사는 스기하라의 따

삼류 고등학교의 문제아들(그들은 실상 일본 사회에서 배제된 디아스포라 등의 마이너리티들이다)은 기발한 방법으로 일본의 최고 수재들이 모여 있는 ‘성화여학원’의 여학생들과 커플을 이루어낸다.

30)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GO』, 講談社, 2001, 72쪽. 조총련계 민족학교에 다니는 스기하라는 중학교 3학년 때, 민족학교가 아닌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는다. 당시 민족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학교의 존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스기하라의 이 결심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동요할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로 교감은 이를 절대적으로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 비밀이 탄로 난 뒤 스기하라는 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고 『김일성 원수의 혁명역사』 시간에 졸았다는 것은 폭행의 좋은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귀를 때리고 넓적다리를 걷어차면서 귀를 잡아당겨 스기하라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한다. 스기하라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이유는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다는 것에도 그 사이 북한이던 국적을 남한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는 스기하라에게 “너는 민족반역자이다(おまえは民族反逆者だ)”, “너 같은 놈은 뭘 해도 안 돼(おまえみたいな奴は何をやってもダメだ)” 등의 험한 말과 함께 “너는 매국노다(おまえは売国奴だ)”³¹라는 폭언을 퍼붓는다. 물론 스기하라는 자신이 ‘매국노’라는 말을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왜 매국노가 아닌지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는데, 스기하라를 대신해서 ‘정일’이 교실 뒤쪽에서 외친 말이 “우리는 나라라는 것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였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의심과 고민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재일조선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조선’은 여전히 식민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식민지 지배국 일본이라는 점에서 이런 의문은 매우 뿌리 깊다. 김석범은 일찍이 ‘조선’이라는 고유명사가 욕설처럼 사용되는 어이없는 사실을 고발하며 ‘국가’를 사유한다. 그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반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가 총회꾼, 우익, 폭력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어이없는 욕설을 들었다는 요시가와 유이치(吉川勇一)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요시가와 유이치(吉川勇一)에 따르면, 총회꾼(総会屋)들이 ‘베平連(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의 약칭-인용자)’을 매도하기 위해 쓴 용어가 ‘조선’이었고, “‘입 닥쳐, 조선 놈’, ‘네놈들, 조선에 돌아가...’(『黙れ、チョーセン野郎』、『テメーラ、チョーセンへ行け...』)”라는 말을 적어도 세 번은 들었다는 것이다.³² 총회꾼 등의 우익 폭력 단체는 식민지 제국 시대의 전범 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여전히

31) 같은 책, 같은 곳.

32) 김석범, 『私にとって国家とは』, 『言葉の呪縛—「在日朝鮮人文学」と日本語』, 筑摩書房, 1972, 263쪽.

히 전쟁으로 이윤을 올리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간단하게 ‘조선 놈’들의 소행으로 둔갑시켜버렸던 것이다. 이를 두고 김석범은 “같은 일본인을 향해 ‘조선 놈(チョーセン野郎)’이라 할 정도이니 까 ‘조선’이라는 고유명사는 그들에게 ‘바보’(バガヤロウ)나 ‘거지 자식’(コジキヤロウ) 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멸칭으로서의 일반성을 갖고 있”³³⁾는 셈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미쓰비시 등과 같은 독점 거대자본이 자본주의 ‘국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데 있다.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유지되었던 제국 일본을 떠받치고 있었던 식민지시대의 전범기업이, 여전히 전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 현재 일본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석범은 “세계에 타국민의 무고한 피로 물들지 않은 국기가 얼마나 있을지”³⁴⁾ 회의한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기업들이 떠받치고 있는 ‘국가’는 당연하게 그와 같은 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할 뿐,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기업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는 폭력적인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부도덕한 기업의 또 다른 얼굴이고 그런 국가는 언제나 개인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기계일 뿐이다. 따라서 김석범에게 ‘국가’는 없으며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국가란 우선 만들어야 하는 것,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은혜를 가져오고, 그리고 스스로 『국가적인 것을 지양(止揚)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조선에는 아직 완전한 통일국가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특히 통일국가 실현을 향한 그 진행형은 소수민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인간 회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가를 (추상적으로) 부정하고 싶다. 언젠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먼 미래의 ‘국가’의 사멸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국가이다. 그리고 적어도 국가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기까지 그 ‘국

33) 위의 글, 264쪽.

34) 위의 글, 265쪽.

가'들의 존재가 허용하는 인간적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계속 생각해 가고 싶다.³⁵⁾

김석범에게 사회주의 조국은 북한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1970년대에 일본은 물론 남북한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남한과 북한은 아직 국가가 아니며, 남한과 북한은 소수적인 사고가 바탕을 이룬 미래적인 통일국가로 거듭 나야 한다. 그래서 그 '국가'란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형의 것이며 그것은 또 억압적이고 착취하는 권력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마저 영원히 존속해서는 안 되는, 먼 미래에 '사멸'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형태의 국가를 상상하는 것은 김석범이 경험했던 모든 국가가 식민지 제국과 연결되어 있는 강고한 권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일본어와 허구, 그리고 서정이라는 양식

김석범의 '재일'은 이와 같은 상황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남북한을 비롯하여 일본까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재일'의 삶은 그러므로 구체적 현실임과 동시에 '허구'이기도 했다.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재일조선인은 조국에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전후 30년의 『재일』 생활은, 그것이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이 독립한 시점에서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적어도 나에게) 허구 위에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남한이든 북한이든 김석범과 같은 재일조선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현

35) 위의 글, 266쪽.

36) 김석범, 『在日の虚構』,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1981, 66쪽.

실에서 살고 있고,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이 독립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재일’이란 상상 가능한 현실이 아니었다. 또한 그것이 30년 이상이나 지속되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에게(적어도 김석범에게) ‘재일’이란 ‘허구 위에 이루어진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품는 조국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향수와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이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구상할 경우 필수적인 취재도 할 수 없는 현실은 김달수가 입버릇처럼 말하듯 “미칠 것 같”고, 작가의 생명을 끊는 것과도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도 한다.³⁷⁾ 그러나 ‘재일’이라는 허구적 현실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 개인에게로 이야기를 되돌리면 이 ‘재일’의 삶이 허구라는 생각은 일본어로 창작하는 까닭에 한층 심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허구인 까닭에 또한 유(有)가 생성된다. 무(無)에서만 유(有)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위안이 될까.

그런데, 만약 내게 이 ‘재일’의 삶이 아니라 해방직후 남조선에 머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복잡한 생각에 빠지지만 틀림없이 나의 생명은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³⁸⁾

재일조선인작가로서 일본어로 창작한다는 것, 이는 해방 직후부터 재일조선인작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고 김석범에게는 ‘재일’의 허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재일’이 아니었다면 그의 삶은 지속될 수 있었을까? 1945년 3월 서울에 왔다가 같은 해 6월 오사카로 되돌아간 김석범³⁹⁾이 만약 서울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고향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의 와중에서 그의 삶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가 추정하듯 생명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재일’이라는 ‘허

37) 위의 글, 67쪽.

38) 위의 글, 69쪽.

39)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48쪽.

구'적 삶은 문학적 창작과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다시 말해 김석범에게는 '재일'이라는 '허구'야말로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었던 셈이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일조선인 작가'와 조선어/일본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일본어라는 무기를 통해 일본(어)를 극복하려 했던 그래서 조선어와 일본어는 '긴장된 투쟁관계'에 있다는 그의 인식은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다.⁴⁰⁾ '허구'에 대한 이와 같은 김석범의 인식을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석범이 '허구'에 집착하는 것은, 일본문학의 전통 가운데 '단가(短歌)적 서정'과 '사소설(私小説)'의 전통에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사소설은 소설에서 허구를 배제하고, 표현을 '작자=나'라는 감정의 발로와, 영탄의 한숨에 의해 왜소화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일본적인 것'인 것을 거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김석범에게 있어서 문학의 임무란, 상상력에 의해 자립성을 획득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다. 그것은 현실에서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치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뚤어진 현실을 허구 측에서 역조사(逆照射)하여, 현실 세계를 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이처럼 국가가 없는 이들, 그 경계에 선 이들이 드러내는 문제의식은 '현실 세계를 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날카롭고 본질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체득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중요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또 한 사람이 김시중(金時鐘)이다. 김시중은

40) 이에 대해서는 이재봉,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漢陽』, 『三千里』, 『靑丘』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47, 한국문학회, 2007, 186-190쪽 참조. 그리고 김석범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언어의 문제, 즉 일본어의 논리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언어의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번역의 (불)가능성, 언어와 상상력의 문제 등의 다양한 국면이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논의할 생각이다.

41)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임형택·김재관 편,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257쪽.

제주도에서 황국신민으로서 해방을 맞이했고 따라서 제국 일본 이외의 다른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던 그는 일본의 패전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으로 받아들인다.⁴²⁾ 그랬던 그가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거대한 허위였음을 깨닫고 ‘조선’을 맞아들이게 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김시종은 한글교습소에 다니고 독서회에 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당 인민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4.3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제주를 탈출하여 일본으로 밀항하여 쓰루하시로 가지만 밀항 후의 삶도 순탄할 리 없었다.

그는 민족학교에서 일하면서 한 때 조직 운동에 몸 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교조화 되어가는 조직과 불화를 겪으면서 창작 활동에도 적잖은 제약을 받기에 이른다. 1957년 7월 『진달래』⁴³⁾라는 잡지에 실은 「장님과 뱀의 역지문답(盲と蛇の押し問答)」이라는 시가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식민지 시대 카프 맹원이었던 북한의 조벽 암에게 “배추밭의 두더지”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면 북한으로부터 지명 귀국(재일동포 귀국사업에서 특정한 인물을 지명해서 귀국하라고 종용한 것-인용자)을 요구 받기도 한다. 또한 그는 1970년대 재일조선인의 대표적 잡지 『삼천리』 창간호에서부터 장편시 「이카이노시집」을 연재하고 있었다.⁴⁴⁾ 그리고 김시종은 『삼천리』10호에 「이카이노시집」의 작품

42) 이를 김시종은 “선 채로 땅 밑바닥으로 박히는,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충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金石範·金時鐘, 『対談, なぜ書きつけてきたか、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 2001, 17쪽.

43) 김시종이 중심이 되어 1953년 2월 창간했으며, 1958년 10월 통권 20호로 종간되었다.

44) 참고로 『삼천리』에 연재된 『이카이노시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한국어 제목은, 이진경 외 역, 『이카이노시집/계기음상/화석의 여름』(도서출판 b, 2019)을 따랐다.) 창간호(1975년 봄)-「見えない町(보이지 않는 동네), 2호(1975년 여름)-「朝までの貌(아침까지의 얼굴), 3호(1975년 가을)-「うた ひとつ(노래 하나), 「うた ふたつ(노래 둘), 4호(1975년 겨울)-「うた またひとつ(노래 또 하나), 「イカキノ トケビ(이카이노 도깨비), 5호(1976년 봄)-「寒ぼら(겨울 송어), 「日々

으로 「젖은 연기가 나다(いぶる)」, 「여름이 온다(夏がくる)」, 「13월이 온다(13月がやって来る)」라는 세 편의 작품을 투고한다. 그런데 그 중 가장 긴 「13월이 온다(13月がやって来る)」라는 시는 게재되지 못한다. 이 시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정권을 이양하려는 것을 두고 세상에 없는 '13월'이라는 이미지로 비판했기 때문이었다.⁴⁵⁾ 이 사건으로 『삼천리』와도 완전히 결별하게 된 김시중은 “북조선 김 왕가 일족을 존봉하는 조선 총련의 조직적 규제”에 시달리다가 1959년~1960년 이미 완성해 두었던 장편시 『니이가타(新潟)』를 10여 년이 지난 1970년 연말,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의 주선없이 발행해 버림으로써 비로소 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⁴⁶⁾ 게다가 그는 밀항 후부터 자신의 본명으로도 살지 못한다. 지금도 그의 공식적인 이름은 임대조(林大造)로 되어 있고 본명인 '김시중'은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다.⁴⁷⁾

の深みで(1)(나날의 깊이에서(1)), 6호(1976년 여름)-『日々の深みで(2)(나날의 깊이에서(2))』, 7호(1976년 가을)-『朝鮮辛報-この届くことのない対話-(조선신보-이 가닿을 길 없는 대화), 『社会瓦報-この置き去られる遺産(조선와보-이 내버려진 유산)』(참고로 삼천리에는 『社会瓦報』로 되어 있지만 이진경 등의 번역에는 『조선와보』로 되어 있다.), 『日々の深みで(3)(나날의 깊이에서(3))』, 8호(1976년 겨울)-『果てる在日(1)(재일의 끝에서(1))』, 『果てる在日(2)(재일의 끝에서(2))』, 9호(1977년 봄)-『果てる在日(3)(재일의 끝에서(3))』, 『果てる在日(4)(재일의 끝에서(4))』, 『果てる在日(5)(재일의 끝에서(5))』, 10호(1977년 여름)-『いぶる(젖은 연기가 나다)』, 『夏がくる(여름이 온다)』

45) 이상의 사정은 (김시중 대담)김동현·서정원·이재봉, 『재일 시인 김시중의 삶과 문학』, 『신생』, 2019년 가을호, 315-317쪽 참조.

46) 김시중, 윤여일 역,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2017의 한국어판 서문, 7-8쪽 참조.

47) 김시중은 2003년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무국적의 삶과 결별한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 사후 사십여년이 지나 찾아낸 부모의 묘소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되겠고 적어도 연 한 두 차례는 성묘”(김시중, 윤여일 역,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2016, 272쪽)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시중은 “소생 이번에 외국인 등록서명의 ‘임’林으로서 한국의 제주도에서 본적을 취득”(같은 책, 같은 곳)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시중이라는 본명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명을 회복할 수 없어 ‘임’(林大造)라는 이름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과 상황은 (김시중 대담)김동현·서정원·이재봉, 앞의 글, 302

이런 삶을 김시중은 ‘재일을 산다(在日を生きる)’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은 『삼천리』5(1976년 봄)에 발표된 『이카이노시집 5』에서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카이노시집5』에는 『겨울송어(寒ぼら)』와 『나날의 깊이에서(1)(日々の深みで(1))』이라는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재일을 산다(在日を生きる)’라는 표현은 『나날의 깊이에서(1)(日々の深みで(1))』에 나타난다.

とうに彼は(이미 그는)
 確実に 年は(나이는 분명)
 夢が干からびてとるもの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たのだろう。(꿈이 말
 라버릴 때 든다는 걸 알고 있었으리라.)
 分別くさく(분별 짓고)
 条理をたて(조리条理를 세우고)
 承知の上で(뭉튼 잘 알고 있고)
 老成した。(노련해졌다.)
 統一までも国家まかせで(통일까지도 국가에 내맡기고)
 祖国はそっくり(조국은 완전히)
 眺める位置に祭ってある。(구경하는 위치에 모셔두었다.)
 だから郷愁は(그래서 향수는)
 甘味な祖国への愛であり(감미로운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在日を生きる(재일을 사는)
 一人占めの原初さなのだ。(일인독점의 원초성이다.)
 日本人に向けてしか(일본인에 대해서가 아니면)
 朝鮮でない(조선이 아닌)
 そんな朝鮮が(그런 조선이)
朝鮮を生きる!(조선을 산다!)
 だから俺に朝鮮はない。(그래서 나에게 조선은 없다.)
 聞ききった瞳孔の(활짝 열린 동공의)
 映像を宿したかげりだけだ。(영상을 품은 그늘뿐이다.)
 つまり俺が(즉 내가)

影なのだ。(그림자인 것이다.)

김시중, 『나날의 깊이에서(1)(日々の深みで(1))』⁴⁸⁾(강조, 인용자)

‘재일을 살다(在日を生きる)’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 표현이 ‘조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⁹⁾ 거기다 사실 ‘재일(在日)’은 그 자체로 ‘일본에 있다’라는 완성된 문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일본이라는 사실만을 말하려 한다면 ‘일본에 있다(在-日, 日本にいる)’ 또는 ‘일본에 산다(日本に住む)’ 등의 표현이, 아니면 ‘재일이다(在日である)’ 등의 표현이 일본어 문법상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재일을 산다(在日を生きる)’라고 표상되는 순간 ‘재일’은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재일’은 이제 김시중이 주로 살았던 오사카라는 공간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며 남한도 북한도 아니다. ‘재일’이란 그 어느 곳도 아닌 경계이자 틈새이며,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장소, 그의 의식이 닿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 더욱이 ‘재일’이 ‘살다(生きる)’라는 동사와 결합되어 부사어가 아닌 목적어로 바뀌는 순간, 적극적 실천의 의미를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재일조선인들이 흔히 사

48) 김시중, 『日々の深みで(1)』, 『三千里』5, 1976년 여름, 69-70쪽. 우리말 번역은 김시중, 이진경 외 역, 『이카이노시집/계기음상/화석의 여름』, 도서출판 b, 2019, 50-51쪽의 것이다.

49) 김시중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지금은 ‘재일을 산다’ 같은 명제가 ‘재일’을 말하는 관용어처럼 되었다는 인상이지만, 삼십수년 전에 내가 ‘재일’의 실존이나 재일을 사는 젊은 세대들의 독자성을 입에 올렸을 때만 해도 상례를 벗어난 망연으로 내몰려 조직적 지탄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젊은 세대들의 ‘조국 지향’을 무디게 만들어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립’을 그르치는 ‘코스모폴리탄적 허무주의자’라는 낙인에 얽드려 기게 되어 한창 청춘이던 시기, 만 십 년간 모든 표현 행위를 차단당했다. 시대의 변천을, 재일조선인 ‘주체성’의 변모를 세삼 생각한다.”(김시중, 윤여일 역,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2017의 한국어판 서문, 9쪽.)

용하는 ‘재일하다(在日する)’라는 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일본어의 문법을 비틀어버리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 이는 김시종이 일본이라는 되돌려진 공간에서 줄곧 일본어를 마주 했던 태도와 연관된다. 이것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내는 그의 문학, 더 넓게는 삶의 태도와 연관된다.

약삭같이 몸에 들러붙은 교활한 일본어의 아집을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을까? 더듬더듬하는 일본어를 철저히 제거하여, 숙달된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는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품었던 내 일본어에 대한 보복입니다. 나는 일본에 보복을 하고 싶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익숙한 자신에 대한 보복이 도달한 곳은 일본어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히고, 일본어에 없는 언어 기능을 가져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때 나의 보복이 완수된다고 생각합니다.⁵⁰⁾

황국소년이었던 시절부터 몸에 붙은 일본어를 비틀고 더듬거리게 하여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는 김시종이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부정하게 만든다.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과 그 속에 있는 일본어를 언제나 똑바로 응시하는 것은 그의 삶이고 문학이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살고(朝鮮を生きる)’, ‘시를 살고(詩を生きる)’, ‘일본어를 산다(日本語を生きる)’. 그의 문장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표현들, 그리고 이제는 일본에서도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이런 표현(예를 들어 일본인들에게도 ‘암을 산다(癌を生きる)’라는 표현은 쉽게 찾을 수 있다)은 김시종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⁵¹⁾

50) 김시종, 『내 안의 일본과 일본어』, 이진경,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 도서출판 b, 2019, 73쪽에서 재인용.

51) 이와 같은 태도를 앞의 오임준의 논리에 대입시키면 어떻게 될까? 오임준이 우려했던 대로 유려한 일본어가 조선인을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면, 일본어를 비틀고 불편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획득하는 행위는 조선인을 가시화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일본에서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하는 이런 태도는, 김석범이 끊임없이 허구를 고민하듯 ‘서정’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서정이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형식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김시종에게 서정은 ‘영탄의 정감이라고만 여겨 왔던 감정의 유로流路가 실은 인간 사고 저변을 이루는 내질内質⁵²⁾로 다시금 인식된다. 그는 또 자신의 사고방식을 질서화 시킨 것은 일본어였고 그 일본어에는 7·5조의 정감률, 정감의 총화 같은 서정이 들어 있다⁵³⁾고 말한다. 이 서정은 그가 황국신민의 소년이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 속에 들어 있고, 천황의 명령으로 가미카제 특공대로 죽으러 가던 학생병사들의 단가에도 들어 있어 그 죽음을 강화하는 기제로도 작동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그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자연은 아름답고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서정은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시종에게 서정이란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할 자명한 대상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결별해야만 하는 것이다. 멈출 수 없는 이 결별의 과정이 김시종의 삶이고 문학인 셈이다.

그러니까 비평의 뽕들은, 낚시질 할 때 그 뽕들, 비평의 뽕들은, 서정

시집이 그리 많이 팔리지 않는 데 비해 김시종의 시집은 사정이 다르다. 김시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내 시집이 책방에서 전부 팔렸어요. 책방에서 시집이 전부 팔린 시인이 일본에서는 없어요. 나는 이름이 석 자가 되어서 어찌 좀 눈에 잘 띄어서 그런지 전부 팔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해요. 내 시집은 4~5천부 팔립니다. 이런 예가 또 없지요. 나는 집필 금지 당해서, 한 십여 년간 아무것도 못한 연월도 있고 해서, 시집이 한 열 권, 열 한 권 정도 되는데요, 어느 시집이건 다들 세 번 네 번 재판해서 출판했습니다. 어느 시집이고 다 그랬는데, 『이카이노시집(猪銅野詩集)』은 다섯 번 나왔습니다. 다섯 번.”((김시종 대담)김동현·서정원·이재봉, 앞의 글, 312-312쪽) 김시종은 이렇게 가시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52) 김시종, 윤여일 역,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2017, 49쪽.

53) (김시종 대담)김동현·서정원·이재봉, 앞의 글, 331쪽.

에 잡겨야 된다. 서정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일본 아주 정감적이라는 노래 잘 알죠. 동요도 잘 알고, 소학교 창가도 잘 알고, 군가도 알고 다 압니다. 또 일본 근대시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디 전공 대학 교수보다 내가 아는 게 많죠. 그런데서 나는 소년기를 자랐죠. 어긋난 내 소년기를 키운 게 일본어야. 일본어 속에도 이런 서정을 갖고 있는 일본어, 문학적 그런 서정이야. 해방이 되어서 내 일본어와 결별이 된 셈인데,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일본에 또 오게 되어서 또 일본말로 살게 되었어. 일상을 일본말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문학을 하는데 내 일본말 쓰게 되니까. 그렇다면 대체 해방은 뭐냐. 나는 어디부터 해방이 되느냐. 사람의 사고라는 것은 언어가 있어야 사고가 됩니다. 내 사고방식을 질서시킨 것은 일본어입니다. 그 일본어에는 7·5조의 정감률, 정감의 총화 같은 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일본에서 시를 쓰게 된다면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서정과 내 결별해야 됩니다. 유려한 일본말이 아니라, 능숙한 일본말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성미에, 규약에 맞는 말이 아니라, 거친 일본말로, 그대로 줄줄 읽지 못할 일본말,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말과 결별하지 못합니다.⁵⁴⁾

오노 도자부로(小野十三郎)의 『시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김시중의 이와 같은 인식은 서정을 의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속박되어 모든 것을 비평으로부터 제거해 버린다는 생각에서 나타난 것이다. 좋은 시가 서정시라는 일반적이라는 인식으로부터의 결별, 특히 일본 자연주의 문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예찬의 대상인 ‘자연’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나 찬미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는 일’을 의미한다.⁵⁵⁾ 그러므로 그가 살았던 오사카의 이카이노(猪飼野)를 비롯한 재일의 공간은 그에게 ‘자연’이자 삶의 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일본에서의 생활이란 일본어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대치의 관계였고, 일본어에 대한 보복이

54) 위의 글, 330-331쪽.

55) 김시중·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대담, 정기문 역, 『전후문학과 재일문학』, 『오늘의 문예비평』, 2016년 가을호, 102쪽.

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 역시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인이란 특정한 직능이거나 재능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말로 발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다.⁵⁶⁾ 따라서 그에게 시란 끊임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결별, 그것이 그가 ‘재일’이라는 경계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문학적 실천을 영위해 온 방식이었던 셈이다.

4. 경계를 넘어서

경계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 그들은 애초부터 경계의 존재는 아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계의 삶을 살도록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경계의 존재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므로 경계의 존재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계의 삶으로 내몰리고 나면 여기서 벗어나기는 지극히 어렵다. 동일성으로 무장한 강고한 체제는 그들을 부정하며 내부로의 편입을 한사코 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의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말

56) 다음을 보자. “따라서 나는 시인이라는 존재를 특정한 직능이라고도 재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 발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으로써 시를 만들어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는 말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사고는 역시 우쭐한 교만이 아닐까요. 시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라는 쪽이 내게는 소망스럽습니다. 다양한 사람살이 가운데서 구석구석까지 접제하는 시인들의 존재를 생각하건대 이 사회가, 나아가서는 이 지구가 각별히 사랑스러워집니다.” 김시중, 윤여일 역,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2017, 47-48쪽.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들리지 않기에 그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다고 할수록, 들리지 않는다고 할수록 그들은 더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명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관념들에 균열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다. 스스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경계로 내몰려 있는 그들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은 현실과 관념들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그만큼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다. 국가는 과연 동일한 역사와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견고한 체제인가? 그리고 그 체제는 과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가? 그들이 쓰는 언어는 과연 모두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 언어는 과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만 기여하는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그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은 과연 사람들의 보편적 감정에 충실한가? 그래서 문학은 의심할 수 없는 제도인가?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때로는 당혹스럽다.

불편하고 당혹스럽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근대적 체제와 관념들이 많은 모순과 폭력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사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 권성우, 「김석범 대하소설 『화산도』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의 의미-밀항, 이카이노, 경성(서울)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8, 현대소설학회, 2020. 35-65쪽.
- (김시중 대담)김동현·서정원·이재봉, 「재일 시인 김시중의 삶과 문학」, 『신생』, 2019년 가을호, 288-336쪽.
- 김용규,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호미 바바 읽기」, 김상구 외, 『틈새 공간의 시학과 실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5. 1-35쪽.
- 문재원,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사이 경계와 해체-현월(玄月)과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5-21쪽.
- 양명심, 「재일조선인과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장소-재일조선인발행 잡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7, 동악어문학회, 2016. 153-176쪽.
-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 이연숙, 「디아스포라와 국문학」, 임형택·김재관 편,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243-260쪽.
- 이영희,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조선인부락-이카이노」, 『일본어문학』 75, 일본어문학회, 2016. 287-300쪽.
- 이재봉,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 자리-『漢陽』, 『三千里』, 『靑丘』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7, 한국문학회, 2007, 163-199쪽.
- 이진경, 『김시중, 어긋남의 존재론』, 도서출판 b, 2019.
- 최학림 대담, 「부산 온 일본 아쿠타가와상 수상 재일동포 현월 씨」, 『부산일보』, 2007년 1월 22일.

-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GO』, 講談社, 2001.
-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김난주 역, 『레벌류션 No.3』, 북폴리오, 2004.
- 김석범,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1981.
- _____, 『言葉の呪縛—『在日朝鮮人文学』と日本語』, 筑摩書房, 1972.
- 金石範·金時鐘, 『対談,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なぜ沈黙してきたか』, 平凡社, 2001.
- 김시중, 윤여일 역,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2017.
- _____,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2016.
- 김시중, 이진경 외 역, 『이카이노시집·계기음상·화석의 여름』, 도서출판b, 2019.
- 김시중·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대담, 정기문 역, 『전후문학과 재일문학』, 『오늘의 문예비평』, 2016년 가을호. 87-123쪽.
- 김창생(金蒼生),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 風媒社, 1982.
- 서경식, 권혁태 역, 『언어의 감옥에서-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역,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 양석일, 김석희 역, 『피와 뼈(血と骨)1, 2, 3』, 자유포럼, 1998.
- 오임준(吳林俊), 『見えない朝鮮人』, 合同出版, 1972.
- 원수일, 김정혜·박정미 역, 『이카이노 이야기』, 새미, 2006.
- 鄭閨熙·趙博·蔡孝 외, 『좌담회, 特集 在日朝鮮人文学の今日と明日、二・三世が語る在日文学はこれでいいのか』, 『民涛』 창간호, 1987. 11. 56-85쪽.
- 조지현, 『조지현 사진집 이카이노(猪飼野)-일본 속의 작은 제주』, 도서출판 각(유), 2019.

<Abstract>

Questions raised by beings on the border
- Korean-Japanese and 'Nation', 'Language',
'Literature'

Lee, Jae-Bong*

It is common that Korean-Japanese living on the border who are neither South Korean nor North Korean nor Japanese often reveal their existence, regardless of their will, by cracking notions or questioning ideas that people do not doubt because they think they are natural or self-evident. They live as invisible beings in invisible places, but they can be anywhere and their voices can be heard anywhere. Whether intended or not, they make or shake various notions that people take for granted or self-evident. As they're the beings on the border being pushed out, they frequently raise questions about the core notions that make up the modern times such as the nation, language, and literature.

Therefore the questions they raise are so essential and fundamental: Is the nation really a solid system consisting of the same history and language? And can no one really escape from that system? Does the language they use have the same attributes? Does the language only contribute to facilitating communication? Rather, does it work as a mean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s the literature in that language really true to people's universal feelings? So a literature is

* Pusan National University.

an unquestionable system?

The questions they raise are sometimes uncomfortable and embarrassing, but we should look them straight and listen to what they say.

Key Words: border, Zainichi, Korean-Japanese, nation, language,
literature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7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17일